

28 희생

Chapter

요 12:20~33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73장 (들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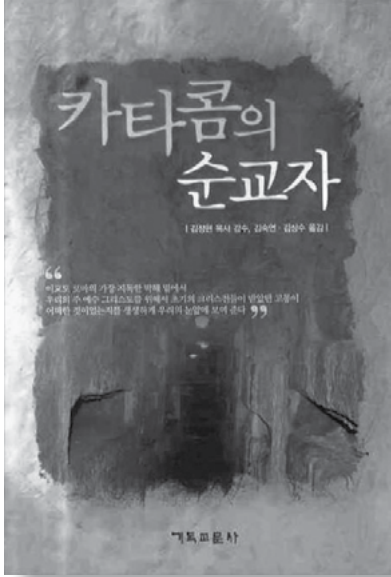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압니다.
2.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서점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 보세요. 이 책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시기에 장래가 촉망되는 황제의 근위장교 마세라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는 총책임자가 된 루세라스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세라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친구 루세라스는 친구의 전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을 이해하기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공회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훗날 사울이 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치러야 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은 물론 죽을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우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거나 순교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수고와 희생이 요구될 때에 우리가 혹 물려서거나 희생하기를 꺼린다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주위의 소중한 영혼들은 영원히 잃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produces much grain. (Jn 12:2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행 20:31~35)

(고전 9:11~18)

(살전 2:7~9)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여러 번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세요.

1.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즉, 예수님께 이모가 되는 분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 24절에서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눅9:46, 눅 22:24을 참고하여 그 이유를 추측해 보고 적어 봅시다.
3.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6~27절을 읽고 요약해 보세요.
4. 섬김과 희생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과 섬김은 무엇이었는지, 28절을 읽고 답을 적어 보세요.
5.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로 남을 섬기며, 묵묵히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고, 교제시간에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에게 있는 인색한 마음이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죄의 특징-뭉는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더니 그는 혼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흥미하게 되느니라 (잠 5:22~23)

아일랜드의 페트릭 다시 죽음의 땅으로



페트릭(Croagh Patrick 389~460년)은 당시 로마령인 영국 서해안 즉 웨일즈 지방에서 켈트족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불과했습니다. 페트릭이 16세 때, 아일랜드 북부의 스코트족이 영국 서해안 지역을 침입하여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는데 이때 페트릭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섬의 어떤 지주에게 팔려 6년 동안 돼지를 치는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페트릭은 그러한 고난 중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기도와 경건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노예 생활이 6년쯤 지날 무렵, 페트릭은 어렵게 항구를 통해 배로 아일랜드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도주하여 레린스(Lerins) 수도원에 머물면서 영적인 평안을 취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페트릭은 수도원 생활을 하던 중 꿈속에서 빈번하게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믿는 자여!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우리와 함께 지내 주시오.” 그 소리는 그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페트릭은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던 기억에 쉽사리 아일랜드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불신앙의 암흑에 빠져 있다는 부담감을 가진 채, 그는 ‘고을’지방의 오세르 교회로 가서 수확하고 성직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소명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는 40세의 나이에 다른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노예 생활의 아픔이 생생한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노예가 되었던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432년 페트릭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당시 그곳에는 각종 미신과 마술, 드루이드교(Druid, 자연 숭배와 주술적 신앙의 종교)가 만연했기에 그의 선교는 시작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페트릭은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몇몇 드루이드교 추장들을 복음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페트릭은 아일랜드 로이게어 왕으로부터 선교 활동을 허가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왕의 동생에게서 대지를 하사받아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도 페트릭은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정으로 그가 사역한 지 15년 정도가 지나자 아일랜드의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30년 간의 선교 여정 가운데 페트릭은 남치를 포함하여 열두 번이나 드루이드교 추장들과 무장군인들, 강도들에게서 죽을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조금도 늦추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페트릭의 희생을 통해 그가 사역한 30년 동안 아일랜드 전역에 최소 2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10만여 명 이상이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각 지역마다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460년, 아일랜드에서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